

노형욱 장관, “철도역 방역·운행 안전에 만전” 강조

- 14일 서울역 한국고속철도 철도역사·열차 방역실태 전반에 걸쳐 현장 점검

-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 주문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4일 수도권 코로나-19 방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을 방문하여, 철도역사 및 열차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□ 먼저, 노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전국 주요 역사 탑승 전 발열체크 등 강화된 철도분야 방역 대책을 보고 받은 뒤, “코로나-19 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○ 이어, 한국고속철도 방역현장을 둘러본 뒤, “지금까지 철도분야는 철두철미한 방역조치로 열차 내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”라며, 강화된 방역대책이 승객에게 잘 안내되고,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또한 “방역으로 인해 자칫 운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”면서, 촘촘하고 치밀한 시설물 점검 및 차량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이어,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방문한 노 장관은 “철도시설 내 국민의 지킴이 역할과 해외입국자 한국고속철도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면서,

○ “코로나-19로 인해 철도 승객 간 분쟁이 증가하는 등 철도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”라며, “승객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1. 7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